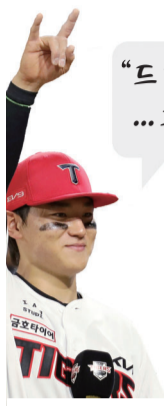


양현종·김도영, 광주동성고 선후배 “장군명군”



“드디어 선배님께 도움
... 굉장히 행복하다”

“도영이가 워낙 좋은 기록 세워서... 잘했다”

양, 올 시즌 개인 두 번째 완투승
김 '내추럴 히트포더 사이클'
1만3480일만에 동시 기록 달성



광주동성고 선후배 양현종(36)과 김도영(20)이 KBO 리그 역사상 두 차례밖에 없던

대기록을 합작했다. 양현종은 완투승, 김도영은 사이클링 히트로 37년 만의 동시 달성 주인공이 됐다.

KIA타이거즈는 지난 2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D아인노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0차전에서 8-1 완승을 거뒀다. 이날 선발 투수로 나선 양현종은 9이닝을 4피안타(1피홈런),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무사사구 완투승의 주인공이 됐다.

양현종의 완투승에 광주동성고 후배 김도영이 힘을 보탤었다. 김도영은 1회말 내야 안타를 시작으로 3회말 2루타, 5회말 3루타, 6회말 홈런을 차례로 뽑아내며 사이클링 히트를 넘어 내추럴 사이클을 만들어냈다.

완투승과 사이클링 히트가 동시에 나온 것은 1982년 삼성라이온즈 성낙수-오대석, 1987년 빙그레이글스 손문근-이강돈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무려 1만3480일만의 대기록.

양현종은 이날 경기 후 “직전 선발 등판은 기억에서 지웠다. 이미 지난 일이기 때

문에 이번 등판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초반부터 타자들이 점수를 잘 뽑아준 덕분에 긴 이닝을 던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도영도 “사이클링 히트를 의식은 했다. 의식했지만 타석에서 더 침착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만 생각했다”며 “제 존만 생각하고 제 존에만 반응하자고 주문했는데 기록이 나왔다. 오늘은 딱 그런 날이었던 것 같다. 운명적인 그런 날”이라고 경기를 복기했다.

대기록을 쓰기까지 이들 모두 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현종은 이번 주 두 차례 등판을 소화해야 하고, 6회초에는 서호철에게 만회 솔로포를 내주기도 했다. 김도영은 두 번째 타석에서 3루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주루 판단 미스로 2루에 멈추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양현종은 “정재훈 투수 코치가 일요일에 등판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 던지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8회에 던질 거면 차라리 9회까지 던지면서 불펜 투수들이 휴식을 취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주자가 나가면 교체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고 말했다.

김도영도 “두 번째 타석에서 3루를 갈



KIA타이거즈 양현종(오른쪽)과 김도영이 지난 2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D아인노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0차전에서 37년 만에 완투승과 사이클링 히트를 동시에 달성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수 있었고, 갖아야 하는 상황인데 못 가면서 점수가 못 났다”며 “계속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타석에서는 처음부터 3루를 가겠다는 생각으로 전력 질주했다”고 설명했다.

대기록을 쓴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감이다. 양현종은 공격적인 투구를 무기로 상대 타선을 적극적으로 공략했고, 김도영은 자신이 설정한 존에 집중하며 팀을 위한 타격에 힘을 쏟았다.

양현종은 “공격적으로 투구를 해야 야수들이 수비하는 시간도 줄고 상대 투수들이 쉴 시간도 줄어든다”며 “최대한 템포를 빠르게 공격적으로 투구했고, 공격이

나 수비에서 운도 많이 따랐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도영도 “세 번째 타석에서 감이 너무 좋아서 사이클링 히트를 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야구 인생 최고의 날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날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루하루 팀 승리에만 신경 쓰니까 기복 없이 꾸준히 안타를 치는 것 같다. 지금처럼 팀에 필요한 것만 신경 쓰겠다”고 다짐했다.

광주동성고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이날 대기록의 가치를 두고 서로를 더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양현종은 김도영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돌리고, 김도영은 양현종에

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모습이 있었다.

양현종은 “저는 인터뷰를 안 할 거라 생각했다”며 “도영이가 워낙 좋은 기록을 세웠고 또 워낙 잘했다. 팀에 도움도 많이 됐다. 저보다는 도영이가 인터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속쓰러워했다.

김도영도 “항상 양현종 선배님 등판에는 더욱더 집중하려고 한다. 수비에서도 실책을 안 하려고 한다”며 “타석에서 올해 제가 도움을 드린 적이 없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느낌이 컸다. 오늘은 뭔가 해내서 승리에도 기여한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다”며 미소 지었다. **한규빈 기자**

세한공공스포츠클럽 태권도, 광주오픈서 선수 전원 입상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 태권도 선수단이 ‘2024 광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에서 출전 선수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24일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에 따르면 지난 19~21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 열린 이번 대회 겨루기 부문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출전 선수 7명 전원이 메달을 목에 걸었다.

어린이통합A -36kg급의 송주혁과 카뎃A -57kg급 최도진, 카뎃A -51kg급 박시은, 카뎃A -36kg급 오하운, 시니어A -68kg급 배성용 등이 금빛 빛차기에 성공

했다. 카뎃A -31kg급 김은지와 시니어A -58kg급 배종문은 은메달을 차지했다.

최공집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사업단장은 “최선을 다해 성과를 거둔 우리 선수단과 신뢰원 지도자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전남 태권도 활성화는 물론 공공스포츠클럽운영을 통해 우수한 인재 육성 및 양성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무등BC,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우승

무등베이스볼클럽(무등BC)이 제28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무등BC는 지난 17~23일 무등야구장에서 광주지역 5개 중학 야구팀이 리그전으로 승부를 가린 이번 대회에서 2승 1패로 총장BC와 동률을 기록했으나 실점이 더 적어 우승을 차지했다.

무등BC는 지난 17일 총장BC와 첫 경기를 4-7로 패했으나 22일 동성중을 8-0, 6회 콜드로 이긴 뒤 23일 진흥중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9-2 승리를 거뒀다.

무등BC는 2승 1패로 총장BC와 동률을 기록했지만 대회 규정상 실점이 총장

BC(12실점) 보다 낮은 9실점을 기록, 우승을 거머쥐었다.

최우수선수상은 무등BC 구민준이 수상했다. 우수투수상은 무등BC 박시언이, 타격상은 10타수 7안타 타율 0.700을 기록한 무등BC 이준영이 받았다.

최다타점상은 무등BC 박한울(6타점), 최다도루상은 진흥중 김승하(4개), 감투상 총장BC 김정민, 미기상 총장BC 조민혁이 각각 수상했다.

무등BC를 우승으로 이끈 김성일 감독은 감독상을, 최재현 코치는 지도자상을 각각 받았다. **최동한 기자**

‘한국新 보유자’ 지유찬 “21초72 넘어 새 기록 쓰겠다”

2024 파리 올림픽 광주·전남 태극전사 <4>

내달 1일 경영 자유형 50m 출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화정남초-전남중-광주체고를 나온 지유찬(21·대구시청)이 수영 인생 첫 올림픽 무대에 도전한다. 자유형 50m 한국 신기록 겸 아시안게임 신기록(21초72) 보유자인 그는 자신의 기록을 넘어 2024 파리 올림픽 결승에 우뚝 서겠다는 다짐이다.

지유찬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무대인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고 돌아오겠다”며 “준결승 진출이 현실적인 목표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결승 진출까지 이뤄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유찬은 이번 대회에서 수영 경영 남자 자유형 50m에만 출전한다. 주종목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체력과 정신력을 오롯이 자유형 50m에 쏟아부으려는 각오다.

그는 “21초72를 깨야 준결승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또 깨야 결승까지 갈 수 있다”며 “올림픽은 여러 종목에 출전하지 않고 자유형 50m에만 나선다. 모든 힘을 집중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국 수영 국가대표팀 지유찬이 지난해 9월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경영 자유형 50m 결승에서 21초72의 기록으로 터치 패드를 찍으며 한국 신기록과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동시에 경신, 금메달을 차지한 뒤 포효하고 있다. 뉴시스

지유찬은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자유형 50m 예선에서 21초86으로 대회 신기록과 한국 신기록을 동시에 경신한 뒤 결선에서는 21초72로 다시 신기록을 쓰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자유형 50m에서 한국 대표팀이 21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다.

그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신

기록 겸 대회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며 “아시안게임에 이어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유찬이 수영 인생 처음으로 나서게 된 올림픽은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무대이기도 하다. 평생의 꿈을 이루게 된 만큼 출전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큰 성과를 챙기겠다는 의욕도 드러냈다.

그는 “올림픽은 어릴 때부터 정말 가고 싶었던 큰 무대다. 100년 만에 파리라는 멋진 도시에서 다시 열리는 올림픽이 첫 무대가 돼 더 기분 좋고 기대도 크다”며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자유형 단거리에서 한국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적으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유찬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한 뒤 퐁텐블로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했다. 지난 23일에는 경기가 열리는 파리 라 데팡스 아레나에서 첫 공식 훈련을 치렀고, 다음 달 1일 실전에 나선다.

그는 “자유형 50m는 실수가 없어야 하는 종목”이라며 “0.01초를 다투는 종목인 만큼 스타트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썼고, 매 훈련을 실전처럼 집중해서 임했다. 꼭 좋은 경기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